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GLOBALISATION - A FORCE FOR GOOD



The Rt. Hon. Patricia Hewitt MP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

2002. 6. 10.

필자 약력

The Rt. Hon. Patricia Hewitt MP

現 영국 통상산업부 장관

Cambridge대卒.

Leicester West 지역 하원의원(1997~)으로서, 현재 여성 및 정보화 관련업무 담당 장관직도 맡고 있음.

재무부 경제담당 장관(1998~1999), 중소기업 및 전자상거래 담당 장관(1999~2001) 등 역임.

주요저서: "About Time" (1993)

세계화: 혜택의 원동력*

The Rt. Hon. Patricia Hewitt MP

본인은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은 지난 40년 동안의 한국의 탁월한 경제적 업적을 훌륭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한국이 1997년의 외환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영국과 유럽의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본인도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영국은 유럽측이 곤경에 처한 아시아의 우방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1998년 제2차 런던 ASEM 회의 주최국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의 영국방문은 한·영간의 깊은 우정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그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우리가 현재 세계경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최근 수개월 동안 일어난 경제침체와 끔찍한 9·11 테러 사태는 우리가 세계 속에서 얼마나 깊이 상호 의존하고 있는가를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의 대응방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안전하고 번영하는 세계를 이룩하기 위한 세계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국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는 말이 있다. 상호의존도가 심화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속담이다.

한·영 양국은 세계경제 속에 가장 긴밀히 통합된 국가들에 속하므로 그러한 사실에 의존하여 번영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면모는 무역과 투자 분야를 넘어 점차 기업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학계, 정부간의 협력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 2001년 9월의 한·영 첨단기술포럼은 이러한 종류의 협력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오늘날 수천 명의 젊은 한국 학생들이 영국에서 공부하며 한국의 문화와 관점과 학문을 영국과 함께 나누고 있다. 본인은 영국에서 더 많은 한국 유학생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영국은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동시에 세계 주요 상용어인 영어의 본고장이기 때문이다. 또 점차 더 많은 영국 젊은이들이 아시아를 방문하여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유서 깊고 자랑스러운 아시아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곳의 역동적

* 이 글은 세계경제연구원과 주한 영국대사관이 2002년 1월 9일 공동개최한 특별강연회의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이고 현대적인 사회도 체험하고 있다.

잉글랜드 축구팀이 월드컵 경기 실제 시합은 일본에서 하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할 계획이라는 사실에 대해 본인은 기쁘게 생각한다.

이 모든 것이 한국에 대한 우리 영국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한·영 양국은 서로 중요한 무역상대국이기도 하다. 양국의 기업들은 서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은 자금이나 상품의 단순한 흐름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산업혁신이며 부의 창출인 동시에 사회적, 과학적, 민주적 발전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다. 무역은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무역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또 주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세계화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코피 아난(Kofi Annan)의 말처럼 “세계화가 어떻게 하면 수십 억의 세계 인구를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 힘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작년 11월 도하(Doha)에서 있었던 세계무역기구(WTO) 뉴 라운드의 출범이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142개국이 도하 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에 합의했다. 이 아젠다는 광범위한 뉴 라운드 무역협상의 개시와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특히 중점을 둔 일괄적 조치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개발에 중점을 둔 무역 라운드는 경제성장을 자극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 경제침체의 와중에서 이 역사적 협상은 경제적 자신감을 확대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러한 과정의 시작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뉴 라운드는 농업이나 그 밖의 상품들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무역증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무역은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에게도 경제발전으로 나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

아시아의 국가들이 “호랑이” 이건 “용” 이건 간에 그 국가의 경제체제는 개방된 세계 무역체제가 국가의 성장과 개발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바로 한국이 50년간의 무역·투자 자유화가 개발에 도움을 주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이다.

40년 전 한국의 1인당 GDP는 수단의 GDP 수준이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역동적인 아시아 지역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무역과 이로 인한 경제성장은 유럽에서도 경제가 성숙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사회들이 더욱 풍요로워짐에 따라, 영국과 유럽의 수출업체들에게는 새로운 시장들이 개방되어 왔다. 이것은 무역이 우리 경제를 상호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영국 총 수출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에게 EU국가들 중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이며, 가장 큰 한국상품 소비시장이다. 한국은 영국에게 26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본인은 이러한 무역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뉴 라운드는 142개 WTO 회원국들 내의 서비스와 관세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무역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번영을 가져다 주며, 투자를 증진시킨다.

본인은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한·영 양국간 상호투자의 흐름이 증가하기를 희망한다.

투자는 신흥국이든 선진국이든 간에 한 국가의 경제에 유익하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외국인 투자혜택의 사례일 수 있겠지만,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유럽의 투자자들은 아시아에 자본을 가져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술과 경영 노하우(know-how) 그리고 일자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 또한 영국에 대한 투자국으로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대영 투자에서도 몇몇 최고의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 기술과 지식을 가져다 주고 있다. 본인은 지난 달 한국이 영국에 아이파크(iPark)라는 명칭의 첨단기술 배양센터를 설립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양국간의 공동연구가 더욱 증가하기를 기대한다.

영국은 오래 전 1960년대에 이미 한국의 자동차 및 조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노하우를 제공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주요 업적 중 하나는 한국에 대한 투자의 흐름을 가속시켰다는 점이다. 제2차 런던 ASEM 정상회담 이후 영국이 투자통상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함으로써, 대한(對韓)투자 확대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한 국가들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에 투자한 영국 기업들은 테스코(Tesco), 얼라이드 도메크(Allied Domecq), BP, 프루덴셜(Prudential) 등의 선두적 기업 뿐만 아니라, 툴리스 러셀(Tullis Russell) 등과 같은 중소기업들도 있다.

본인은 지난 달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다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분명 이러한 투자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인권, 시장경제, 복지개혁, 남·북한 화해 등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커다란 헌신에 본인은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본인권과 훌륭한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성장과 번영의 가능성이 크게 증가될 것이라는 사실이 점차 자명해지고 있다. 투자자들이 바라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다.

우리 모두는 자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촉진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투자조건을 향상시킬 여지는 항상 존재하며, 이는 투자유치 경쟁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업에게 어떤 국가에 회사를 설립하도록 설득할 때 노동비용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투자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우호적인 규제환경, 훌륭한 지배구조, 투자기업들이 국내기업과 동등한 방식의 대우를 받는다는 보장이다.

한국과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어 왔지만, 투자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뉴 라운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03년부터 무역협상이 투자와 경쟁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본인은 한·영 양국이 이러한 분야의 장벽들을 제거하기 위해 WTO 내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요소들 중 몇 가지는 쌍무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 방송, 금융서비스, 사업정보서비스, 법률 등의 부문은 여전히 외국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금지하고 있거나 제한하고 있다. 이는 그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외국 법률회사들은 한국에서 외국법 관련 업무조차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점이 영국에서 우려하는 것이다. 외국 법률회사들은 기업금융이나 인수합병 등의 문제들에 대한 국제 자문 업무 경험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의 법률부문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회사들은 법률적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문화적 이해까지도 가져올 것이므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의 변호사들은 아무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으며, 실제 그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외국기업의 시장진입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일은 영국같이 선진 경제체제를 갖춘 나라에게도 다른 나라들 못지않게 큰 도전이다. 유럽 단일시장 내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경쟁촉진 부분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다.

영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시장자유화의 확대와 더욱 심도 있는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에너지 및 금융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며, 유연한 노동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외국인 직접투자가 투자자와 투자유치 국가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며, 바로 이러한 환경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는 영국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국 기업가들도 있을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대한 한국의 전체 투자액 중 약 40%를 유치했다. 이는 분명히 영국이 외국기업을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고, 영국 경제에 도입된 기술과 혁신적 요소 그리고 영국 내에 창출된 일자리들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유연성 있는 노동시장, 적절한 규제환경, 유럽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통신 및 관련설비 시장, 유리한 조세환경 등으로 인해 영국은 삼성, LG와 같은 유명 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투자도 유치해왔다. 영국의 우수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그러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있어 점차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영국은 EU로 유입되는 첨단기술, 연구개발부문 투자의 가장 큰 몫을 유치하고 있다. 많은 외국기업들이 현재 영국에서 연구개발과 디자인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참신한 아이디어와 해결 방법들로 미래의 번영과 경쟁력을 실현시켜왔으며, 영국은 이러한 혁신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노벨 과학상 수상자들을 배출한 나라이다. 이렇듯 훌륭한 업적을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가 된다. 또한 영국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는 첨단기술 및 연구개발부문 투자의 지속적인 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번영을 위한 열쇠이다.

한국은 이미 과학·기술 협력분야에서 영국의 중요한 상대국이며 이러한 협력관계가 확대되고 긴밀해지도록 하는데 본인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수는 160개인데 비해, 한국 기업은 6개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장기적인 이익을 얻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이 외국의 제휴업체와 연구 개발 관계를 구축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영국이 바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대(對)영국 투자를 언급할 때에는 유럽 단일통화에 대한 영국의 생각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으로 안다. 현재 유로화가 발행된 상태이므로 우리는 현재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이며, 영국인들은 유로화를 사용하는데 곧 익숙해질 것이다.

영국은 유럽 단일통화 사용에 참여한 국가이므로 무역, 투명성, 비용, 통화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잠재적 이익을 얻게 되며, 이것이 원칙적인 영국의 유로화 지원 이유이다.

그러나 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조건이 합치해야만 하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 정부는 엄격하고 포괄적인 평가를 내리기 위한 5가지 경제적 시험에 전념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일통화의 사용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험도 포함되어 있다.

이 시험의 결과가 어떻든 간에 영국 내의 투자기업이 3억 7,400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유럽 단일시장에 진출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크다. 또 런던은 투자자들에게 유로화로 거래되는 모든 종류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유럽 최고의 금융중심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런던에서는 달러, 유로, 엔화가 해당 통화 자국 내에서보다 더 큰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 자기만족에 사로 잡혀서는 안 되겠지만, 방대한 유동성, 전문성, 문화환경을 갖추고 있는 런던은 번영을 이루기에 좋은 곳이다.

세계 경제체제에서 우리 모두는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물론 현재의 경제적 조건도 도전을 받고 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각 지역의 경제성장이 한꺼번에, 더구나 예전보다 더 급격하게 침체된 상태이다.

이처럼 동시에 발생한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어떤 나라도 세계적인 투자 경쟁에서 등을 돌릴 수 없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며 전 세계의 기업과 정부가 맞고 있는 도전이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본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전부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국과 영국의 경우 해답은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협력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고 여겨진다. 즉, 고유의 강점을 끌어내어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을 개방하며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준 교훈이다. 유연하고 역동적인 나라가 난관을 견디어낼 수 있는 조건을 보다 잘 갖추고 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경제침체가 심하지 않으며, 이러한 침체에서 신속하게 회복된다.

금융혼란에 대한 최선의 방어책들은 훌륭한 감독과 규제 체제를 갖춘 자본시장,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 및 투명성이다.

금융위기를 경험했던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경제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내린 엄격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결정들에 대해 큰 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경제의 주요 부문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1999년에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고 2000년에는 확고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는 그 자체에서 나타난다. 또 한국은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어려웠던 2001년도에도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보다 더 잘 견뎌왔다.

한국이 당면한 도전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최근의 여러 사건들로 인해 한국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 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안다.

본인은 “호랑이에게 물려 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또 다른 한국 속담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 경제 구조조정은 길고 힘들며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영국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짧은 고통보다는 긴 안목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계 경제체제에서 한국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는 것처럼 각국 정부들도 협력해야만 한다.

한국이 개혁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영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97년에도 그랬듯이 영국은 한국의 편에 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본인이 이번 방한기간동안에 한 약속이다. 그리고 영국은 세계 경제체제 내에서 한국과 협력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본인이 처음으로 방한한 지금은 흥미로운 시기이다. 한국, 영국, 아시아, 유럽이 직면한 도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주어진 기회 또한 풍부하다. 한·영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질 의 · 응 답

[질 문] 무역 및 금융부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1997년 금융위기 이전, 한국은 런던시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코리아-유로 펀드(Korea Euro Fund)’ 나 ‘코리아-아시아 펀드(Korea Asia Fund)’ 등 전환사채 시장 부분에서 그러하였다. 그러나, 지금 ‘코리아-아시아 펀드’는 더 이상 거래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의 증권산업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다. 귀하는 이러한 시점에 한국의 기업들과 런던 증권거래소 간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채널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증권회사들이 앞으로 유럽에서 전환사채, 워런트(warrant), 예금유치 등 금융조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답 변] 본인은 전환사채나 파생상품, 기타 난해한 금융상품들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나 말하고 싶은 것은, 런던과 그곳의 금융기관은 전세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매우 다양한 욕구들을 충

족시켜줄 금융상품을 구상함에 있어서 세계 어느 시장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정교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원칙적으로 한국의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의 욕구가 런던시장에서 충족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4월 서울을 방문할 예정인 런던시장과 다시 한번 토론의 기회를 갖길 바란다.

[질문]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총리는 여성지도자로서 전 세계의 존경을 받고 있다. 오늘 귀하의 강연을 듣고 보니, 귀하는 제2의 마가렛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귀하는 앞으로 영국 총리 출마에 관심이 있는가?

25년전 주한 프랑스 대사는 한국 정부의 공무원들이 미국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아주 비판적이었는데, 한국 공무원들의 모든 것이 미국적이라는 것이었다. 이는 아마 미국 기업들이 한국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던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하버드(Harvard)대학에는 500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재학중인데 비해 옥스포드(Oxford)대학에는 50명에 불과하다. 오늘 강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다. 장기적인 관점에 볼 때,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이 아닌 영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답변] 영국에는 매우 훌륭한 여성 정치인들이 많다. 특히 집권여당에 많은 것 같다. 지난 해 6월 선거결과, 전체 22인으로 구성된 영국 내각에는 여성의원이 7명 있다. 영국은 기회평등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일보를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본인이 보편적인 언급을 하자면, 우리는 지식, 기술, 그리고 재능이 점차 경제적·사회적 성공의 요소가 되어가는 세계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인류가 가진 재능의 절반이 아닌, 전부를 끌어내어야 한다는 것은 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중요하다. 본인 생각에는 기업들이 점점 더 여성인력을 신규채용하고 증가시킬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본인은 한국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을 한국에서 여성 기업가들 및 정치 지도자들과 가진 대화를 통해 알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 지도자들을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학생들의 영국유학을 장려하는 문제에 대해, 우선 본인이 호주태생이라는 사실부터 말하고 싶다. 본인은 영연방인 호주에서 태어나 자랐다. 본인은 학생신분으로 캠브리지(Cambridge) 대학으로 유학을 왔으며, 그 이후 영국에서 살고 있다. 물론 영국이 외국 학생들을 그리 환영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은 변화되었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총리는 3년 전에 세계수준의 영국대학에서 수학하기 위해 한국 및 세계 전역에서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를 늘리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특히, 영국은 뛰어난 젊은 지도자들을 위해 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해 왔으며, 물론 그 대상 중 일부는 한국에서 선발한다.

본인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여 유학을 지원하는 영국 대학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옥스포드나 캠브리지와 같이 잘 알려진 오래된 명문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대학, 이를 테면 카디프 언론대학(Cardiff University School of Journalism)과 같은 곳에서도 그러할 것이다. 본인은 한국 언론인을 한두 명 만난 적이 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아주

좋은 학업성적을 내고 있었다. 그 대학은 언론분야에 있어서 매우 뛰어난 학교이다. 물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국제적인 대학 중 하나인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수학중인 다른 한국 학생들도 있다. 학업을 위해 미국만 찾을 것이 아니라 영국을 찾는 한국의 차세대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 유로화를 채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제적 조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현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다른 유럽국가들이 이를 채택할 경우에도 영국은 여전히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현재 10개월동안의 침체에 빠져있는 영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빨리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답변] 우선, 5가지 경제적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 본질적으로, 귀하의 질문은 영국이 유로존(Eurozone)의 단일통화정책 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영국에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5가지 테스트는 영국이 유로존의 다른 나라들과 경제집중을 충분히 이루어 왔는지, 영국경제가 단일금리에 대해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는지의 여부이다. 그리고 단일통화가 투자와 런던 금융시장, 그리고 영국의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영국 재무부는 지금부터 2002년 6월까지 이러한 테스트를 실시할 것이며, 이 5가지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단일통화 가입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만일 영국 정부가 가입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판단된다면 단일통화 가입여부가 의회에 상정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다.

제조업과 관련하여, 영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이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제조업체들이 그러하다. 이렇듯 유로존의 수출업체들을 어렵게 만든 부분적인 이유는 유로화의 심각한 약세에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경쟁력, 기술변화의 영향 등과 같은 장기적 요인 때문이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제조업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더 많은 제조업체들이 생산성과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최근 몇 년 동안 영국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공급 업체들과 함께 생산성을 대폭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현재 영국에 있는 몇몇 자동차 공장들은 세계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 그 공장들에 대해 언급을 한다면 혼다(Honda)가 최근에 영국에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설립하였는데, 혼다의 사장은 자동차를 제조하기에는 영국이 유럽에서 최적지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최근 미국의 보잉(Boeing)사는 금속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 한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은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보잉사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이 있는 영국으로 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저하게 우수한 기술과 과학에 기초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 기술을 향한 끊임 없는 노력, 바로 그것이 어려운 무역상황을 겪고 있는 영국 제조업이 회복되기 위한 길일 것이다.

[질 문] WTO의 지난 도하회담과 과거 시애틀회담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묻고 싶다. 귀하는 두 회담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개도국들의 인식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도하회담을 이끌어 나가는데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는가?

[답 변] 본인은 여기에 많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첫째, 도하회담이 훌륭하고 광범위한 사전준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준비는 시애틀회담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다. 본인은 시애틀회담에서 분명하게 얻은 몇 가지 교훈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개도국들의 인식변화에 대한 귀하의 견해에 동의한다. 말하자면, 영국 정부가 주도하여 개도국들의 역량 구축에 투자하도록 한 사항은 실제적인 효과가 있었다. 물론, 일부 최빈국 정부에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국제무역 협상의제를 다루는 공무원이 아마 한 사람 또는 두세 사람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나라들의 무역담당 공무원 및 장관들이 자기 나라를 대표하여 협상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개도국들 정부와 공무원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크게 중점을 두어 시간과 자금을 투자해왔다는 점은 분명히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일부 개도국들의 훌륭한 리더십을 언급하고자 한다. 이를 테면, 다른 아프리카대륙 국가 정부들과 함께 도하회담에 참여하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통상장관인 알렉 어윈(Alec Erwin)을 보자. 아프리카 국가들은 도하라운드에 제출할 의제를 합의하였다. 그런 연후에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및 ACP국가들(Africa, Caribbean, Pacific Group of nations)과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따라서 그들은 도하회담 당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협상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참여했다. 이는 협상의 형평성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선진국들이 자신의 주장을 세울 수 없었던 후진국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자 했던 시애틀회담과는 다른 의미였다.

세 번째는 선진국들의 태도변화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개도국들의 역량구축에 대한 투자로 인해 나타난 부분도 있지만, 노동기준 의제에 대한 커다란 민감성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물론 이러한 노동기준은 시애틀회담의 주요의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선진국 국민들이 노동기준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개도국들이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더 큰 이해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결국 합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많아져 도하선언 그 자체에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도하에서는 WTO가 더 성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되며, 현재 WTO는 세계경제에 유익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훨씬 더 성숙된 기구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협상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속사항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기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답변을 하자면 상당히 긴 다른 요인도 있는데 이를 간단히 언급해 보면, 그 동안에 의약품, 개도국들의 의약품 접근성, 그리고 의약품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우리가 도하회담 바로 초입에 이에 대해 합의를 했다는 사실은 협상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었고, 이는 다시 다른 이슈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 문]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듯, 본인도 한편으로는 9·11 테러사태가 도하회담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귀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애틀회담의 실패는 세계화된 사회를 이해하는데 훌륭한 교훈이 되었다. 그래서 도하회담은 준비가 잘 되었다. 그러나 시애틀회담이 연기될 당시에는 문화와 덤핑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협상이행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9·11 테러사태가 전 세계에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간에서도 더 많은 협조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반신뢰(anti-trust), 반덤핑 등과 같은 의제들에 대해서 더욱 쉽게 합의가 이루어졌다. 귀하의 견해로는 9·11 사태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가?

[답 변] 귀하의 견해에 동의한다. 본인은 도하회담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는 현실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쥘릭(Robert Zoellick)대표는 몇 주전에 9·11 테러사태로 인해 구축된 테러리즘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실제 군사적 연합은 경제적 연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바꾸어 말하면 무역협상에 대한 약속은 대(對)테러리즘 연합에 합류한 최빈국들이 번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9·11사태 이전에 취했던 미국의 태도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인데, 세계 공조체제에서 미국이 탈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던 우리들 대다수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9·11사태는 분명히 상황을 변화시켰다. 미국은 세계체제 속으로 분명히 다시 합류하였으며 세계 여타 지역과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있다.

[질 문] 두 가지 질문이 있다. 첫째는 1993년에 발간된 귀하의 저서에 관한 것이다. 그 책은 시간에 관한 것으로, 직업과 여성생활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귀하께서 만일 두 번째 책을 출간한다면 무엇에 초점을 두겠는가? 둘째, 귀하는 여성부 장관(minister for gender equality)으로 알고 있다. 그 위치에서 귀하의 역할은 무엇인가?

[답 변] 귀하께서 카디프대학(Cardiff University) 출신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귀하의 연구에 감사드립니다. 그 책은 영국 및 여타 유럽국가들의 직업구조가 시간적 상황별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를테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은(이는 대부분의 남자들이란 의미이다) 학교를 졸업한 후부터 정년퇴직시까지 약 40년 동안 전일근무제(full-time)로 일을 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일로 보내는 남자의 전형이다. 영국과 이와 유사한 나라에서는 점차 아주 다른 상황이 나타난다. 영국 노동력의 거의 절반이 여성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절반이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을 시간근무제(part-time)로 일을 한다. 시간근무제로 일하는(자외든 그렇지 않든) 남성들의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영국에는 한국이나 다른 유럽국가들의 방식처럼 주당 법정근로시간이 없다. 따라서 영국에는 가끔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끼고 주 5일 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은 주중에 “주말”을 갖는다. 이는 아주 다른 형태이다. 물론, 여성들의 고용이 점점 더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것은 가정상황을 변화시켰고 부모들

에게는 어린 아이들과 집안 어른들을 돌봐야 하는 어려움이 더 커졌다.

영국 정부와 여성부 장관인 본인에게 커다란 당면과제 중 하나는 그들이 아이들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균형을 맞추으로써 가족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활해 나갈 방법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서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국은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점차 증가시키고 있고, 개개인이 원하는 곳에서 시간제 근무자들의 활용도를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출산휴가 관련 조항들을 개선하고 있다. 이 출산휴가 조항은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1년으로 곧 늘어날 것이다.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아버지에게 2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를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하려 하는데, 이는 아이를 키우는데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영아를 둔 부모들에게는 아이를 돌보거나 가족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무급휴가제도도 두고 있다. 남자는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곳에서 산다면, 이러한 것은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 방식이다. 그러나 여자도 일을 하는 곳에서 산다면, 일과 가족의 균형을 유지하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여성부 장관인 본인의 최우선 과제는 영국의 가정들이 더 쉽게 이러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질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세계화의 많은 부분들이 여성들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복지 및 이와 유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여성들에게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영국 여성문제를 맡고 있는 인사로서, 귀하는 세계화가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답변] 세계화의 영향이 각 나라간에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남녀간에 다양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국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대규모 산업 구조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주 광범위한 것으로서 세계화와 기술변화의 결과이다. 실제로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여성의 삶과 가정에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가 여성들이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바로 전에 설명하였던 그러한 종류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혜택과 고용 및 능력 발휘의 기회를 희생시키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본인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여성들은 더욱 꿈을 이루게 되며, 세계화가 여성들을 위해 더욱 훌륭하게 작용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할수록 우리 기업과 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되는데, 이는 기업이나 경제가 훌륭한 교육을 받아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넓어지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의 여성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소비의 주류이며 가계소비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현대 경제 있어서 차지하는 역할은 중요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질문]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는 지금 매우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귀하는 영국이 근로시간과 관련한 어떠한 법률규정도 두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아주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과 영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국을 위해 설명해줄 수 있는가? 또 이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무엇인가? 한국 국회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 논쟁 중이며, 실제 국회의원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참석 중이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귀하의 견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답변] 이 문제는 본인도 관심이 많은 것이다. 2년 전에 영국과 독일은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정반대의 입장에 있었다. 독일은 분야에 따라 몇 시간 일을 하느냐에 대해 엄격한 법률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를테면, 일반 상점의 경우 평일에는 저녁에,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에 일을 끝내야 했고 일요일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 등이었다.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아주 비슷한 시간 동안 일을 하는데, 대충 말하자면 월~금요일에 대략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 이러한 것이 표준이었다. 정반대 입장에 있는 영국인들은 상점이 문을 열거나,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은 영국과 독일의 중간단계로의 움직임이라고 여겨진다. 즉, 상호 절충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인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더욱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영국만큼 유연해진 것은 아니지만 종전보다는 더 유연해졌다. 독일은 일부 법률개정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러한 유연성을 갖게 되었으며, 이는 영국의 영향 때문에 이를테면 상점이 문을 열 수 있는 시간에 대해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근로시간의 유연성은 노사간의 단체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주 35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연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유연성이 미치는 범위는 대규모 수준의 공장 같은 곳이다.

영국은 유럽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인해 근로시간의 한계를 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였으며, 4주간의 유급휴가제도도 최초로 도입하였다. 영국에는 이러한 법적 제도가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영국은 이를 도입한 것이다. 그리고 교대근무자 근무시간의 한계를 정하고 교대근무 간격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두었는데, 이는 고용주들이 소수 입장의 노동자들을 아주 짧은 교대간격으로 오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관행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물론 이는 직장내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사고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영국은 상식 선에서 근무시간의 한계를 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 기업들은 이를 운영하는 방식을 종업원들과 함께 결정함에 있어서 그 업체가 상점, 공장, 병원, 무엇이든 간에 여전히 많은 여지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즉 영국의 큰 병원을 예로 들면 거의 완벽한 유연성을 가진 근무시간제도를 실시한다. 이 경우 간호사들에게 언제, 몇 시간동안 일하고 싶냐는 질문을 한다면, 병원이 정말 바쁜 시간인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충분하며 주중의 다른 시간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들

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결국 각각의 근로자들이 각자 다른 필요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소규모 조직에서는 이러한 것이 훨씬 더 비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커다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수년동안 대부분의 상점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토요일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영업을 해왔으며, 마찬가지로 저녁에 영업을 시작하는 상점의 수도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것이 흥미로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경제가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하고 여성들의 생활이 변화하면서 야기된 부분도 있다. 즉, 저녁이나 밤 시간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쇼핑과 여가를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소비수요의 변화 뿐만 아니라, 단축된 근무시간과 개인생활에 더 적합한 근무시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욕구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질 문] 한국이 동아시아지역의 새로운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한국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생각은 한국을 큰 규모의 싱가포르나 홍콩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런던이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것은 분명하다. 영국과 홍콩간의 아주 긴밀했던 관계가 끝난 지금, 영국은 한국과 이러한 관계를 설정할 의향이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제안이다.

두 번째 제안은 영국이 주요 세계 금융중심지 중 하나라는 것과 관계된 것이다. 현재 서울이 좋은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한국 사람들의 수도 늘고 있다. 귀하께서 런던 시장에게 이와 같은 생각을 미리 전달하여, 금년 4월 런던 시장의 서울 방문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충분한 대비를 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가?

한국은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보다 나은 교육수준과, 좋은 자질을 갖춘 훌륭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한국 유학생들을 영국으로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영국의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위해 서울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답 변] 한국이 아시아 최고의 비즈니스 중심지가 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본인은 영국과 홍콩의 관계가 끝났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영국과 홍콩과의 관계는 과거와 다른 형태로 현재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홍콩 관계가 배타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오늘날 한국과 영국 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근접성 및 역사적 연계는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큰 자산이며, 한국시장 뿐만 아니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방대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협력파트너를 찾고 있는 여타 기업들과 영국에게 엄청난 매력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금융서비스 문제에 대하여, 선두적인 금융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한국의 포부는 금융서비스 규정의 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최근 영국은 국내 금융서비스 규정 체계를 현대화하였다. 즉, 영국은 금융서비스 주무관청을 신설하고 금융서비스 규정의 현대화를 이루어 온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의 금융서비스 기관들이 투명성과 예측가능한 규제환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 규정의 질과 관련한 이러한 문제는 우

리 모두에게 결정적인 것이다. 영국이 이 부분에 대해 흡족해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이는 실제 금융서비스 중심지로서 세계수준의 상태를 달성·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인은 영국의 일부 금융서비스 기관들이 실패를 겪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를테면 한국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fund manager)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본인은 런던시장의 한국 방문시 이러한 문제가 기업인, 금융감독 당국자 및 정부부처 장관들과 함께 확실히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질문] 세계화와 관련하여, 향후 수십 년간 세계가 맞게 될 가장 큰 역학관계는 아마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WTO 가입에 다른 영향이 될 것이다. 즉, 균형이 유지되는 한, 중국은 역사상 유래가 없는 방식으로 세계 주요 경제세력 중 하나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영국 또한 오랫동안 큰 유럽대륙과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었다. 이러한 유럽대륙은 역사적으로 분할된 경제를 수용하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커다란 단일경제를 이루어 왔다. 영국의 경험에서 볼 때 대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한국에게 해 줄 수 있는 충고는 무엇인가? 또, 귀하께서 한국에 대해 해 줄 수 있는 다른 견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답변] WTO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역학관계는 중국의 등장으로 인해 변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은 도하 협상기간 중에 중국 통상장관과 회의를 가졌는데, 그 당시 중국 통상장관은 중국경제의 대내적 영향, 중국의 WTO 가입, 중국 동부지역의 발전을 서부지역으로 확대시킬 전망과 같은 것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WTO 내에서 개도국과 선진국들 간 교량역할로서의 중국의 포부도 매우 흥미롭게 언급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시에 보여주었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의 역량은 WTO 전체 회원국들을 번영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중국 문화 및 경제에 대한 역사적 연계성과 이해로 인해, 한국은 정치적으로 뿐만 경제적으로도 해야 할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은 본인이 처음으로 방한한 것이다. 따라서 본인은 한국이 중국과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기업인들이나 정부 관료들에게 조언을 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영국과 유럽대륙 국가들과의 관계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자체적인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15개의 유럽연합 회원국들 모두가 여기에 함께 참여하여, 전반적인 유럽 경제 운영의 관리체제를 결정하기 위해 주권을 공유한다. 물론, 이는 한국이 처한 상황과 아주 다르다.

[질문] 귀하는 한국의 방송 및 뉴스서비스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귀하께서 몇몇 기업을 염두에 두었으리라 생각된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로이터(Reuters)가 연합통신과 계약을 맺었지만 몇 년전 양측은 계약을 진행시킬 수가 없었다. 왜냐 하면 로이터가 서비

스의 대가로 아주 높은 가격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지금 지역 언론매체들은 로이터의 뉴스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귀하께서 한국시장이 외국 방송업체들에게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을 하였을 때, 어느 기업을 염두에 두었는가?

둘째, 귀하도 아시다시피 유로화가 지난 주에 통용 실시되었으며, 유로화의 초기 평가에 대한 언론보도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인다. 유로화 실시 초기에 대한 귀하의 평가는 무엇이며 영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새로운 통화와 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쪽인가 아니면 반대하는 쪽인가?

[답 변] 본인은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실제 로이터의 사례이다. 로이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어 왔던 뉴스서비스에 관한 부가가치세(VAT)나 세금 부과문제에 대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분야별로 차등적용하기로 결정하여 영국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아직도 다른 문제와 장벽들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소하지만 중요한 사례를 살펴 보면, 외국 뉴스서비스 기관인 로이터는 한국 정부 산하의 프레스 클럽(press club)에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있다. 영국 내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있을 수 없다. 이는 로이터 입장에서 유쾌한 부분이 아니며, 영국 정부의 장관인 본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사례는 한국의 케이블방송사들이 편성할 수 있는 외국 방송프로그램이 10%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과 BBC의 사례이다. 케이블 방송사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외국의 뉴스 및 정보 공급업체들을 10%의 쿼타에 맞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는 아주 소수의 한국 케이블방송사들만이 세계적인 방송사인 BBC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국의 케이블방송 시청자인 본인은 BBC 방송의 전체 프로그램 뿐 아니라 CNN 및 다른 방송사들의 전체 프로그램도 보고 싶어한다. 본인은 수많은 한국 시청자들이 한국 및 외국 방송사 양쪽 모두의 프로그램을 폭 넓게 즐기고 싶어하리라 확신한다.

다시 강조하자면 영국 총리가 2~3일 전에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은 유로화가 계속 통용되는 한 성공하기를 바란다. 영국은 유로화 도입 초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유로화가 유럽연합, 특히 유로존의 국가들에게 이미 큰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고 믿는다. 본인이 오늘 강연에서 지적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영국은 성공적인 단일통화체제의 일원임을 약속하였지만, 실제로 5가지의 테스트에 일치하는지 그리고 유로화의 일원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영국 경제와 국민들에게 혜택이 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다.

GLOBALISATION - A FORCE FOR GOOD*

The Rt. Hon. Patricia Hewitt MP

I am delighted to be in Korea. The term “Miracle on the Han River” is an eloquent expression of Korea’s huge economic achievements of the last 40 years. I, along with many others in the UK and in Europe, have watched with admiration as Korea has surmounted the 1997 crisis. The United Kingdom, as the host of ASEM II in London in 1998, was at the forefront of European efforts to help our Asian partners during their hour of need. President Kim Dae-jung’s visit to the UK last month reaffirmed the deep friendship between Korea and the UK

The 1997 crisis and our response demonstrated that we now live in a global economy.

Recent months - economic downturn and the atrocities of 11 September - have further underlined the depth of our global interdependence.

Our response must be to strengthen the links between our nations. To build the global architecture to support a secure, prosperous world.

There is a Korean proverb - ‘A monk cannot shave his own head’. We live in an increasingly interdependent world.

Korea and UK both depend on and prosper from being amongst the most integrated into the global economy. This goes beyond trade and investment, and increasingly into partnership, between firms, but also involving research organisations and academia and government. Last September’s UK/Korea High-Tech Forum wa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at kind of partnership.

Today thousands of young Koreans study in the UK. Sharing with us their culture, their perspectives and learning with ours. I would like to see more - the UK offers excellence in education, and is the home of the world’s main business language, English. Growing numbers of young Britons also visit and study in Asia, seeing ancient and proud cultures, but also modern,

* A presentation given at the Distinguished Lecture Forum co-organized by the IGE and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on January 9, 2002.

dynamic societies.

I am delighted that the England football team plan to train in Korea before the World Cup, even though they will be playing their matches in Japan.

All of this helps build our nation's understanding of yours.

We are also major trading partners. Our businesses depend on each other.

But global trade is far more than simply a flow of money or products. It is a force for social, scientific and democratic progress as well as industrial innovation and wealth creation.

That is what trade should be. It can and must benefit everyone.

The question is not whether we should be for or against globalisation, but - in the words of Kofi Annan - "how to ensure that globalisation becomes a positive force for all the worlds people, instead of leaving billions of them behind in squalor."

That is why the launch of a new World Trade round at Doha in November was so important. 142 countries agree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hich combines the launch of a broad new Round of trade negotiations with a package of measures focused specifically on the needs of developing countries.

By stimulating economic growth, a development-focused trade Round offers the best opportunity to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to escape from poverty. And with the downturn in the world economy this historic deal gives a badly needed boost to economic confidence.

Bu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he process. Now we must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deliver real results.

A new Round opens the prospect of increased trade, in agriculture, other goods and services. Trade which is the most secure path to economic progress for developing,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Asia's economies, be they "tigers" or "dragons", show that an open world trading system helps

countries to grow and develop. Korea itself is the best proof that 50 years o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has helped development.

Forty years ago, Korea's per capita GDP was equivalent to Sudan's. Today Korea is the world's 13th largest economy, at the heart of a dynamic region accounting for 20% of world GDP.

Trade and the economic growth it supports helps mature economies in Europe too. As Asian societies have become more affluent, so new markets have opened up for UK and European exporters. This is an important reminder that trade mutually reinforces our economies.

The Asia-Pacific region accounts for 16% of UK exports. The UK is Korea's second largest trading partner in the EU, and the largest market for Korean goods in the EU. Korea is the UK's 26th largest export market. I very much want this trade to continue expanding.

A new Trade Round, by removing service and tariff barriers in 142 WTO members can give a significant boost to this trade. Opening opportunity. Bringing prosperity. Encouraging investment.

I want to see an increase in the already important two-way flow of investment between our countries.

Investment is good for an economy, whether emerging or mature. China is perhaps the best-known example of the benefits of foreign investment in Asia, but by no means the only one. Investors from Europe have brought capital, but even more importantly, technology, management know-how and jobs to Asia. But Korea is also an increasingly important investor in the UK. That investment too brings technology and knowledge from some of Korea's best firms. I was pleased that Korea last month opened a hi-tech incubator centre, known as the iPark in the UK. I look forward to more collaborative research between our two countries

The United Kingdom provided know-how to Korea as far back as the 1960s to help develop Korea's car and shipbuilding industries. One of President Kim Dae-jung's major achievements has been to accelerate the flow of investment into Korea. I am proud that the UK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respond to his call for more by sending an investment mission to Korea after the ASEM II summit in London in 1998. UK companies have been among the lead investors in Korea - Tesco, Allied Domecq, BP, Prudential but also smaller companies such as Tullis Russell.

I know that President Kim renewed his call for more foreign direct investment when he visited the UK last month. The reforms he is pushing forward here will certainly encourage it.

I have been struck by the depth of President Kim's commitment to human rights, a market economy, welfare reform, and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increasingly clear that prospects for growth and prosperity are hugely enhanced if basic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in all areas of society are respected. And it is these values which provide the economic and social stability which investors seek.

We all want to facilitate foreign investment in our economies. But there i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not least because competition to attract investment is increasing all the time. Labour costs are rarely the decisive factor in persuading a company to locate in a particular country. What investors really look for is a friendly regulatory environment, good governance and an assurance that their firms will be treated the same way as domestic firms.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have shown that they treat these issues seriously. But barriers to investment remain.

Again, a new Trade Round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From 2003 negotiations are expected to widen to investment and competition rules.

I hope that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in the WTO to remove barriers in these areas.

But some of these restrictions could also be solved bilaterally. Sectors such as broadcasting, financial services, business information services and law remain closed or restricted to foreign competition and investment. This benefits nobody.

For example, foreign law firms cannot practice even foreign law in Korea, which is a concern for the UK. By bringing in their experience of international advisory work on issues such as corporate finance, and mergers and acquisitions, foreign law firms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and growth not only of the legal sector, but of Korea's capital markets too. They would be a vital support to Korean firms doing business abroad, bringing not only legal expertise, but also a deeper cultural understanding. Korea's lawyers have nothing to fear - indeed they will benefit too.

Removing barriers to entry is as much a challenge for mature economies like the UK. I know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in promoting true competition within the European single market.

As a constructive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continues to take a leading role in pressing for greater liberalisation and deeper economic reform. In particular we are pushing to open up markets in energy and financial services, encouraging innovation, and ensuring flexible labour markets.

Whilst not perfect, I think the UK offers an encouraging example of the benefi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both the investor and the host country, and how the right environment can help attract foreign investors. Some of the Korean business people in this room today, know this very well. The UK has attracted around 40% of total Korean investment into the European Union. This is precisely because we treat foreign companies the same as domestic ones and we value the technology and innovation brought into the economy, and the jobs created.

Flexible labour markets, the right regulatory environment, the most competitive telecommunications and utilities markets in Europe, and a favourable tax environment have attracted not only household names such as Samsung and LG, but also smaller companies. Accessing knowledge and technology-excellence is increasingly the driver in attracting such investment.

The UK attracts the lion's share of external hi tech, R&D-based investment into the EU. Many foreign companies are now carrying out research development and design work in the UK. They do this because they have realised that their future prosperity and competitiveness depends on new ideas and solutions, and the UK is a huge source of innovation.

We have more Nobel Science Prize winners than any other country after the USA. That's a good track record to build on. And we are building on it through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s investment in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This aims to continue attracting the kind of hi-tech, research and development-based investment, which is the key to future prosperity.

Korea is already an important partner in science and technology collaboration for the United Kingdom, and I am keen that this partnership expands and deepens. Just 6 Korean companies carry out R&D in the UK as against 160 Japanese companies. You need to consider whether or not

you are letting your Japanese competitors gain a long-term advantage. If you are interested in forming an R&D relationship with an overseas partner, the UK is the place to do business.

In mentioning investment in Britain, you would, I know, want to hear some statement of our intentions on the European Single Currency. Now that notes and coins have been issued, we are in a new phase. British people will quickly become accustomed to handling the currency.

British membership of a successful single currency offers us potential benefits in terms of trade, transparency, costs and currency stability, which is why we support it in principle. But in practice the economic conditions must be right, which is why the Government is committed to a rigorous and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five economic tests, which include the impact of membership on investment and jobs.

Whatever the outcome, there will be no effect on investors in the UK having access to a European single market of 374 million consumers, larger than the US or Japan. And the City of London remains the premier financial centre of Europe, offering investors the full range of euro-denominated financial products. More dollars, euros and yen are traded in London than in their home financial centres. We should not be complacent, but with its huge pool of liquidity, its expertise and its cultural environment, London is well placed to thrive.

In the global economy we all face many challenges.

Competition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will become more intense. And of course current economic conditions are challenging. For the first time for three decades economic growth in each region of the world has slowed at one and the same time and more sharply than before.

No one country can insulate its economy from such a synchronised slowdown. No country can afford to turn its back on the competition for global investment.

These are challenges for us all - for business and for Governments across the world. It is a challenge we must rise to.

I don't have all the answers. But I do believe that the solution - for Britain and Korea - lies in moving forward confidently, together in partnership. To draw on our inherent strengths, press ahead with economic reform, continue to open up markets and continue to invest for the future.

This is a lesson, which the 1997 Asian crisis drove home. Flexible dynamic economies are better placed to withstand difficulties. They have shallower recessions and they recover from them faster.

The best defences against financial turmoil are well supervised and regulated capital markets, sound corporate governanc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Along with other countries in Asia affected by the crisis, Korea deserves much praise for the tough and often painful decisions it has taken to reform its economy. President Kim Dae-jung has shown great vision in pressing on with restructuring the key sectors of Korea's economy. The results speak for themselves - a rapid recovery in 1999 and robust growth in 2000. And Korea weathered a difficult year in 2001, as the global economy slowed, better than many in Asia.

I know that challenges remain for Korea, and that recent events have revived concerns about Korea's stability.

I can only repeat the advice of another Korean proverb: 'keep cool, even when a tiger carries you off'. Restructuring an economy is a long, hard, painful task - the United Kingdom knows this only too well. But the long-term benefits outweigh the short-term pain.

And in a global economy you do not stand alone. Just as businesses need increasingly to collaborate, so Governments must work together.

The United Kingdom is committed to offering Korea all the support we can to meet the challenges of reform successfully. As in 1997, we will stand by your side. That is a commitment I have given during this visit, and the UK will continue to look for opportunities for partnership with Korea in the global economy.

This is an exciting time to be making my first visit to Korea. The challenges facing Korea, the United Kingdom, Asia and Europe are considerable. But the opportunities too are abundant. Let us work together for the common prosperity of our two countries.

Questions & Answers

Q I'd like to ask some questions about trade and financial issue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South Korea had strong ties with the London market, especially in terms of convertible bonds, the Korea Euro Fund and the Korea Asia Fund. Now, the Korea Asia Fund is no more and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has dwindled. Is there any possibility of creating financial channels between the London Stock Exchange and Korean companies and security companies stronger, together with U.S. security firms, to finance convertible bonds, bonds with warrants or European deposits that will be received in the future?

A Now, I am absolutely not an expert on the design of convertible bonds or derivatives or any of these other mysteries of the financial world. But what I would say is that the City of London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ere are really more expert and sophisticated than any other market in the world in devising the range of financial products that will meet the different needs of companies in a global economy. So in principle, I see no reason at all why the needs of Korean investors and companies that you were referring to should not be met in the City of London. The Lord Mayor of the City of London will be visiting Seoul in April, and I hope very much that you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at issue with him.

Q Margaret Thatcher as a female leader, she's very respected around the world. Listening to your speech this morning, I think you could be the second Margaret Thatcher. That's my opinion. Are you not interested in running for prime minister in the future? That's my first question.

Twenty-five years ago the French ambassador to Korea said that Korean government officials like American things. He was very critical. They liked everything American. That was probably because U.S. companies granted a lot of scholarships to them. For example, at Harvard University there are 500 Korean students. Compared to that, less than 50 at Oxford. Most of the attendees this morning studied at the U.S. In the long term, I hope that many people in the room will be able to have studied in the U.K., not in the U.S. That is my comment.

A We have many excellent women politicians in the United Kingdom, particularly within the governing party I should say. Since the election of June 2001 we now have seven women in the British cabinet out of a total membership of 22. We have been making real strides there toward a greater equality of opportunity.

I would also like to make a general comment. We take the view that in a world where knowledge, skill and talent is increasingly the stuff of economic and social success, it is important that companies as well as governments should draw upon the whole of the human talent pool and not only half of it. Increasingly, I think, we will see companies seeking to recruit and to promote women. I certainly know from the discussions I had with women business and political leaders here in Korea that the level of education amongst Korean women is quite outstanding, and I look forward to meeting many more Korean women leaders in the future.

Now, on the issue of encouraging Korean students to come to Britain to study, I should perhaps say that I am by birth an Australian. I was born and grew up in the British Commonwealth. I came to the United Kingdom as a student to study at Cambridge University. I then stayed. Now, I think it was a pity that there was a period in which the United Kingdom was perhaps less welcoming to foreign students. That has changed. Prime Minister Tony Blair three years ago made a personal initiative to increase the number of students from Korea and right across the world coming to benefit from our world-class universities. In particular, we've increased the number of scholarships for outstanding young leaders, and we recruit, of course, some of those from here, in Korea.

I think over the next year or two we will see more British universities actively seeking to recruit students in Korea and supporting them in their studies in the United Kingdom. Not just in the old universities, in the well-known ones of Oxford and Cambridge, but in institutions as diverse as, for instance, the Cardiff University School of Journalism. I've met one or two Korean journalists who did indeed pursue their studies there to very, very good effect. It is an outstanding school of journalism. Others, of course,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which now must be one of the most international universities in the world. I hope we'll encourage many more of your next generation to look to the United Kingdom and not only to the USA for their education.

Q I have two questions for you. The first one, may you please elaborate more on the right economic conditions in adopting the euro and whether Britain can stay out of the use of the euro when the rest of Europe does. My second question is how soon do you expect U.K. manufacturing to recover from a 10-month recession?

A First of all, the issue of the five economic tests. In essence, the question is whether the United Kingdom will benefit from being part of the same monetary policy framework as the Eurozone. So the five tests are whether we have achieved a sufficient degree of economic

convergence with the countries of the Eurozone, whether there's enough flexibility within our own economy to cope with a single interest rate and what the impact of joining the single currency will be on investment, on the City of London and upon jobs. Those are the tests which our treasury (finance ministry) will be assessing between now and June 2002. On the basis of the assessment of those five tests, we will then make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recommend membership of the single currency. If we decide in government that it is in Britain's interest economically to join, then we will put that to a vote in parliament and then to a referendum of the British people.

As far as manufacturing goes, there's no doubt at all that many of our manufacturing firms-not all, but many-have been facing enormously difficult conditions. Partly as a consequence of the very weak valuation of the euro which has made it difficult for Eurozone exporters. But primarily because of long-term factors: international competition, the impact of technological change, and so on. What we're seeking to do in government is work more effectively in partnership with the manufacturing industry in order to help more firms improve their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For some years now, for instance, we've been working with motor manufacturers and with the component suppliers to motor manufacturers to sharply improve their productivity, with the result that we now have some of the world's most productive car plants. Honda, if I'm allowed to mention them here, recently opened a new motor car manufacturing plant in the United Kingdom with the president of Honda saying that the United Kingdom was undoubtedly the best place in Europe in which to manufacture.

Similarly, we've had Boeing from America recently enter into a partnership with one of our universities for leading edg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metals technology, saying that they want to be the best of the world in their business so they need to be in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access some of the best science in the world. It's that constant search for higher value-added manufacturing, based on outstanding excellence in technology and science, that will be the way to recovery for that part of our manufacturing industry that's been suffering very, very difficult trading conditions.

Q I'd like to ask a question about your comment on the difference in climate between Doha and the last WTO round in Seattle. How much of the difference would you attribute to the changes in the awarenes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and how much would you attribute to the advanced preparations leading to the Doha meeting?

A I think it was due to a number of factors. But first was undoubtedly the quality and

extensiveness of the preparatory work that was done. It was way ahead of what had been done before Seattle. I think some of the lessons from Seattle had undoubtedly been learned, so that helped considerably. Secondly, I would agree with you about changes with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I think the commitment, if I may say so, led, really, by the United Kingdom government, to invest in capacity building has had a real impact. Of course, for governments in som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you have perhaps one, two or three officials dealing with this enormously wide and complex agenda of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It's difficult for those trade officials and ministers to keep up and to make a contribution on behalf of their country. The fact that we've been investing, really quite significantly, money and time in building the capacity of governments and officials in developing countries has certainly helped.

But I would also single out the quality of leadership within the developing countries. We saw, for instance, Alec Erwin, the minister for trade in South Africa, who brought together many of the governments of the African nations. They concerted their agenda for the Doha round. They then worked very closely with the countries of Latin America and the Africa, Caribbean, Pacific (ACP) Group of nations, so that by the time they got to Doha they were very clear about what they wanted, what their negotiating priorities were, what their bottom line was. That meant that there was much more of a negotiation of equals and not the sense that there undoubtedly was in Seattle that the rich countries of the world were seeking to impose their will on governments that simply couldn't stand up to them.

I think the third point was the changes in attitude amongst the developed countries as well, partly represented in that investment in capacity building, but also in a much greater sensitivity around issues of labour standards, which of course was one of the flash points in Seattle. Not that people in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given up their concerns about labour standard issues, environmental factors and so on, but there is a greater understanding of how those issues are see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emselves, which meant that it was more possible at the end of the day, to get a compromise in the Doha Declaration itself.

I think we saw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grow up at Doha, and we now have a much more mature organization that is beginning to become a useful institution within the global economy. We now have to fulfill that promise in the negotiations because a lot of expectations have been raised and they have to be delivered on.

I think the other thing-I know this is a rather long answer-I would mention is that a lot of work had been done on the issue of medicines, access to medicine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copyright protection. The fact that we did get an agreement on that very early on in

Doha again helped build confidence and trust and made it possible to move on to the other issues.

Q Some people claim, and I certainly tend to agree with them to some extent, that in some way the Sept. 11 atrocity played a positive role in this Doha agreement. As you said, the Seattle fiasco was a good lesson from which to learn for the global community. Therefore preparation was well done. But on cultural issues, dumping issues and many other implementation issues, many were unsettled when the meeting in Seattle was adjourned. But Sept. 11 brought to the global community a sense of crisis.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had to get more cooperation among not only industrialized countries but among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Therefore they were more willing to compromise on issues such as anti-trust, anti-dumping issues and so forth. In your view, how much did that play a role?

A I would agree with you. I think there was a real sense that we needed an agreement. Certainly for America Robert Zoellick, the trade negotiator, had said several weeks earlier that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and indeed military, coalition against terrorism that was built in the wake of Sept. 11, had to be underpinned by an economic coalition, in other words a commitment to trade negotiations, that would help to bring prosperity to som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who had taken the step of joining that coalition against terrorism. So I think it was, perhaps, particularly important in terms of American attitudes, given that before Sept. 11, many of us were worried about the possibility of an American retreat from global engagement. Sept. 11 certainly changed that, and we saw America absolutely re-engaging with the world community and recognizing its own interdependence on the rest of the world.

Q I would like to ask you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about your book which was published in 1993. That book was about time. It focused on changes in work and in feminine life. If you publish a second edition, what would you focus on? My second question is, I heard that you were also minister for gender equality. What's your role in that position?

A I don't know whether you went to Cardiff University, but I must compliment you on your journalistic research. That book was a study of how the organization of work in time has been changing in the British and other European economies from a situation where, for instance in our post-World War II world, most people-which really meant most men-

worked fulltime for about forty years, from when they left school until they retired. You had a model of full, life time work for men.

Increasingly in the United Kingdom and similar economies, we have a very different picture. Nearly half of the British work force are women. Half of those women work part-time for at least part of their lives. A growing proportion of men-sometimes willingly, sometimes not-also work part-time. Working hours are becoming more and more varied. We don't have in the United Kingdom a legally fixed working week in the way there is in Korea or some other parts of the European Union. So we have more and more people working sometimes a five-day week, sometimes a five-day week that includes a Saturday or a Sunday, and then their "weekend" is taken during the week. This is a very different pattern. Of course, as more and more women come into employment, that changes the situation at home and makes it much more difficult for parents to organize the care of both young children and elderly relatives.

One of the big challenges for government, and for me as minister for women, is to find ways in which we can support families in balancing earning a living with caring for their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not telling people how to lead their lives, but helping them make choices in their lives. So increasingly we're investing in child care facilities. We're seeking to promote a much greater use of part-time work, where that is what the individual wants, and we're very significantly improving the provisions that we've already made for maternity leave. That will soon increase to one year from when the child is born. We will also be introducing this year for the first time two weeks paid leave for fathers when the child is born to signal the importance of the fathers' involvement in the care of children. We also give parents of young children the right to some un-paid time off from work to help look after children or to help deal with emergencies within the family. Where you have the man earning the living and the woman staying home looking after the children, then that is one way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But where you have the woman also at work, then you have to find other ways of balancing work and family. So my top priority as minister for women is to make it easier for British families to achieve that balance.

Q From a woman's prospective, there are many aspects of globalization that concern women specifically, especially concerning welfare and things like that. It is not always favourable to women. As a person in charge of female matters in the U.K., what would you see as a method to minimize these disadvantageous effects of globalization on women?

A Obviously the impact of globalization does, undoubtedly, vary between women and men, just as it varies between country and country. What I think has been most striking in the United Kingdom has been the combination of massive industrial restructuring-which to a very significant extent, as I was saying earlier, is the consequence of globalization and of technological change-with this revolution, really, in women's lives as women have moved into employment and thereby changed what happens within families.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we can do as a government to enable women to fulfil their aspirations is to pursue the kind of policies that I have just been describing so that women can continue to meet their family responsibilities in the way they want to without having to sacrifice the benefits of their education and the opportunities of employment and a career.

I think that the more we can enable women to combine work and family-the more we meet their aspirations, the more we make globalization work well for them-the more, also, we help our businesses and our economy because they gain access to the full range of well educated and skilled people. Of course those people, those women, in Britain and also in Korea, are the majority of consumers and the people making decisions about household consumption. So women have a rather important role to play in modern economies and their voice needs to be heard.

Q Regarding work hours, since we are having very intense debate in this society regarding legal working hours. You said the U.K. doesn't have any laws concerning working hours. Now, for the sake of the audience here, could you tell us the difference between the U.K. and particularly Germany, which has very strict regulations? What is your assessment of this? Our National Assembly is currently debating the issue-and in fact Mr. Kim, a member of the Assembly is here today-and we would be very interested to hear your thoughts on the matter.

A This is a subject close to my heart. If I go back a couple of years, you could see Britain and Germany as really being at opposite ends of a spectrum about how you deal with this issue of working hours. Germany was very heavily regulated with very strict laws, depending on exactly which sector, about how long you could work. Shops, for instance, had to close in the evening, had to close at lunchtime on Saturday, couldn't open on Sunday, and so on. Most people in Germany worked very, very similar hours, roughly speaking 9:00 a.m. to 5:00 p.m., Monday to Friday. That was the norm. Britain,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had very, very few restrictions on when shops could open or factories could operate or people could work.

What I believe is happening is a certain amount of movement toward the middle; a certain amount of movement toward each other. Germany is becoming more flexible in its working hours. Nothing like as flexible as Britain, but more flexible. They're doing it partly through some legal changes, some small changes from the British point of view in, for instance, when shops can open, but also through collective bargaining. In France, they've been doing i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so-called 35-hour week, but it's actually calculated across the year on the basis of annual working hours, so within that considerable flexibility exists at the level of the plant or factory.

In Britain, we have introduced, because of a European directive, a new law on working time which just sets some outer limits on when people can work. We've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e right to four weeks paid holiday. It never used to exist as a legal right in the United Kingdom. So we've introduced that. And we've put some limits on the length of shifts that people can work and insisted on a minimum number of hours in between the shifts because we did have a minority of workers who were being required by their employers to work very long shifts with very short breaks in between. That is very damaging to people's health and safety and can, of course, lead to accidents at work that may damage other people as well. So we've put some sensible limits on working hours there.

But really within the United Kingdom our companies still have considerable leeway in deciding with their employees how they're going to organize; the shop, the factory, the hospital, wherever it is, and in some cases-I take the example for instance of some of our major hospitals-they offer almost complete working time flexibility. They will say to a nurse, "How many hours would you like to work and when would you like to work?" And in a large organization you will generally find enough people who want to work when things are really busy-on a Friday night, Saturday and Sunday in a hospital-and then enough people who want to work other times of the week, and you balance the different needs of your different workers. In a small organization you can, of course, do it much more informally.

There is very considerable flexibility there, and for many years now we have had the opening of most shops, the legal entitlement of most shops, to open on a Sunday as well as a Saturday. We have had an increasing number of shops that are opening in the evenings as well.

So, it's an interesting area, but again in part driven by the shift to a service economy and the changes in women's lives when more and more people do want to be able to shop or to enjoy leisure services at different hours of the evening or even sometimes in the night, as

well as at weekends. Companies are responding to changes in this consumer demand as well as to the desires of their workforce for shorter working hours and for working hours which are more suited to their individual lives.

Q There are many Koreans who believe that Korea should emerge as a new business center in this part of the world. The idea is to make Korea a large Singapore or a large Hong Kong. London is certainly a business center. Now that your close relation with Hong Kong is over, you might want to establish that relation with us. So that is one suggestion.

My next suggestion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London is one of the major financial centers in the world. There are also a growing number of Koreans nowadays who believe that Seoul can become a good financial center. So when the Lord Mayor of London comes to Seoul this April, you might want to prime him a little on this idea so that when he arrives he is better prepared to discuss this.

For Korea to become a leading business center, it has to produce good people, educate people better, and bring in more talent. In this regard, one thing we could think about is not only sending more Korean students to the U.K. but bring U.K. institutions-your own alma mater-to Seoul to do business.

A About Korea becoming a premier business center in Asia, I wouldn't say that we have turned our back on Hong Kong. The relationship is now different from what it was. But that doesn't mean that it has to be an exclusive relationship and I hope I indicated today the enormous importance we attach to our friendship and our partnership with Korea. I think that the proximity of Korea to China and the historic links are an enormous asset to Korea in strengthening its position, and certainly an enormous attraction to British and other companies in seeking partners, not only for the Korean market, but partners with whom to enter the enormous and very quickly growing Chinese market.

On the issue of financial services and Korea's ambition to become a leading financial center, there are issues concerning the quality of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We in the United Kingdom have recently modernized our own system of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We've created a new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We've made an enormous step forward in modernizing financial services regulation. There is more that Korea needs to do in ensuring that financial service institutions from around the world can operate here in the confidence that they will have a transparent and predictable regulatory environment. That issue, about the quality of regulation, is crucial to all of us. We are certainly not complacent about it in the United Kingdom. It really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in maintaining or

achieving world class status as a financial services center.

Certainly I know there is frustration amongst some U.K. financial services institutions, for instance, about the ability of fund managers to operate within the Korean market. I know that this is an issue that the Lord Mayor of the City of London will most certainly discuss with businesses and, no doubt, regulators and ministers when he arrives.

Q 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perhaps the biggest single dynamic that the world faces over the next several decades is going to reflect China's recent entry into the WTO; the emergence of China, as long as they keep their balance, as a major economic force in the world, in a way that has never previously existed in history. Korea sits challengingly close geographically to the China that is going to emerge. Britain has a long history of sitting challengingly close to a large continental Europe, admittedly one which has been a fragmented economy historically, but over the past many decades one which has become, largely, a single economy. What advice can you give to Korea as it faces its large neighbour from Britain's experience, and perhaps any other perspectives, that you can provide?

A I do think that the dynamics not onl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but really of the global economy, are going to be transformed by China's accession. I had a most interesting meeting with the Chinese trade minister during our negotiations in Doha when he was talking not just about the domestic impact on the Chinese economy and Chinese society of WTO accession and the prospect of spreading prosperity beyond their eastern borders into their western provinces, but he was also talking most interestingly about China's ambition to act within the WTO as a bridge between the developing and the developed world. China's capacity for leadership, which we saw dur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will be really given an opportunity to flourish now that they are full members of the WTO. I think Korea has an enormously important role to play, politically as well as economically, because of its historic links and its understanding of Chinese culture and the Chinese economy. But this is my first visit to Korea. I wouldn't dream of giving Korean business people or ministers advice on how they should develop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 with China.

I do think it's rather different from the United Kingdom's relationship with the continental European economies, of course because we are operating within a European union that has its own governance framework where all the 15 governments of the European Union come together, in a sense sharing sovereignty in order to arrive at decisions around a framework of rules for the operation of the European economy as a

whole. That, of course, is a very different situation from what you have here.

Q You mentioned that the Korean market is not completely open to broadcasting and news services. I think that you had some company in mind? As far as I know, Reuters had a contract with Yonhap, but several years ago the two sides could not strike a contract because, as I was told, Reuters required a very high price for its services. So local media these days cannot receive Reuters' news services. Did you have any particular company in mind when you noted how the Korean market is not open to foreign broadcasting firms?

And secondly, as you know, the euro was launched last week and the media reports that the initial assessment of the euro seems to be successful. What is your initial assessment of the launch of the euro and what is the position of the British government? Is it for or against the new currency and the unification of the European continent?

A I had two examples in mind. One was, indeed, the example of Reuters. We were very pleased by the decision recently by the Korean government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on the issue of VAT, or the charging of tax, on news services, which previously had been biased against Reuters. But there are still other issues and other barriers here. To take a relatively small example, but nonetheless important, Reuters as a foreign news service is not allowed to join, as I understand it, the press clubs that are attached to the ministries of the Korean government. That is not a situation that would exist within the United Kingdom. Clearly it is not one that Reuters is happy about and nor am I as a British government minister.

But I also had in mind the BBC and the fact that Korean cable companies operate with a restriction, a 10% restriction, on the foreign content that they can take. That makes it very difficult for cable companies to decide which of the foreign news or information providers they're going to select to meet that 10% quota. It does mean that only a really quite small, though growing, minority of Korean cable companies actually offer the excellent services of BBC world television. Certainly as a British consumer of cable television, I would like to have not only the full range of BBC television services, but also CNN and a whole range of other providers as well. I'm sure many other Korean consumers would want to enjoy a broad range of both Korean and foreign suppliers.

As far as the euro goes, let me stress again, as the prime minister said a couple of days ago, that we want the euro to be a success. We played an enormously important part in the original introduction of the euro. We believe that it has already brought considerable benefits to the European Union and specifically to the countries of the Eurozone. As I indicated in my speech, we are committed, in principal, to British membership of a

successful single currency, but we also need to be sure, in practice, that our five economic tests are met and that membership of the currency would be good, long-term, for the British economy and the British people.
